

##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자 애착과 작업동맹위기 회복에서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

정선영                      차주환\*  
장안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상담 중 발생하는 불만족 개입과, 내담자의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애착수준과 작업동맹위기 회복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18세에서 22세의 후기 청소년 내담자 남녀 82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에 대해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동맹의 위기회복 수준이 높았으며, 상담과정 중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상담자에 대해 회피와 두려움 애착을 지닌 내담자일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에서의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개입할수록 위기회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줬다. 둘째,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은 안정애착과 작업동맹 회복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작업동맹 회복에 있어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안정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애착,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차주환 / 한영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경인로 290-42 / Tel : 02-2067-4500 / E-mail : cjhn0323@hanmail.net.

## 서론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촉진적인 관계형성을 통하여 내담자와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김계현, 2000; Hubble, Duncan, & Miller, 1999).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성은 상담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Pistole, 1999; 권희경, 2000; 안이환, 2002).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하며,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 상담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Kivlighan, Patton, & Foote, 1998; 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특히 애착과 작업동맹과 같은 내담자의 특성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Foote, 1996; Kokotovic & Tracey, 1990; Mallinckrodt, 1991; 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Satterfield & Lyddon, 1995).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형성한 긍정적인 작업동맹은 상담의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희섭, 정현희, 2012; 최인화, 2007).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의 요인이 상담성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이고 발달 단계상의 특수성이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태도나 정서적 측면이 상담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정찬석, 2004), 청소년 내담자가 치료를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따를 때 성공적 상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내담자가 치료를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따를 때 성공적 상담을 기대할 수 있으며(최인화, 2007), 상담초기에 청소년 내담자와 작업동맹형성을 하는 상담자의 능력이 나머지 상담관계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O'Malley, Suh & Strupp, 1990). 또한 Kazdin, Mazurick와 Siegel(1994)은 청소년 상담에서 50~70%의 청소년들이 상담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종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증대되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며 의존과 함께 독립을 준비하면서 불가피하기 갈등을 불러오는 시기다(Specht & Craig, 1987). 특히 후기 청소년기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이후 일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적 정체감과 직업관을 형성하게 된다(Felsman & Blustein, 1999). 이러한 점에서 후기 청소년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맺고 조기종결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자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요인인 작업동맹은 상담과정에서 회기가 지속됨에 따라 항상 정적으로 증가되거나 향상되지 않으며, 때로는 위기를 맞게 된다(Safran & Muran, 2000). 이와 같이 상담과정에서 작업동맹이 긍정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하락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작업동맹 결렬 또는 위기상황이라 본다. Safran과 Muran(2000)은 작업동맹에서의 결렬을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협력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긴장 또는 와해'라고 하였다. 작업동맹에서의 위기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의 질이 저하될 때 발생하며 위기가 해결되면 저하되었던 관계의 질도 회복될 수 있다(이정화, 2007). 동맹의 위기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50%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진 바 있으며(정선영, 2008), 많은 경우 내담자들은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거나, 태도의 변화, 주제의 전환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경험하는 동맹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동맹 결렬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의 위기에 대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다른 시각을 보일 수 있다. 상담자에게 위기는 보다 생산적인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사건일 수 있으나 내담자에게 위기는 상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자극하는 힘든 사건이 된다(이정화, 2007). Muran(2002)은 동맹결렬사건들이 부적응적인 대인간 도식을 들여다보는 창으로써, 내담자의 핵심이슈와 행동을 잡아낼 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상담에서 위기를 회복했을 경우 오히려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질적인 부분에서의 상담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정선영(2008)은 내담자의 이러한 불만족과 위기의 해결을 통해 상담자와의 유대감, 자율·통제감 수준이 증가하여 상담에 보다 자율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자신의 타인과의 대인양식의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동맹의 위기결렬 자체가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를 상담자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최종 상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상담의 위기를 잘 해결하여 내담자의 인간적 성장과 상담의 장기적 영향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담에서의 오해와 난국을 연구한 Rhodes, Hill, Tompson 그리고 Elliott(1994)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오해는 가족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과의 경험의 반복된 결과로서, 상담자가 부모와 똑같이 행동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테스트로 보았다.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의 경험에서 형성된 내담자의 내적 작동모델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Mallinckrodt, 1991; Mallinckrodt, Gantt, & Coble, 1995). 내적작동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거나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영아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주 양육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토대로 자신과 주 양육자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리고 각 개인은 각자가 형성한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사건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계획하게 된다 (Bowlby, 1980). 즉, 영아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영아가 주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영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신뢰롭고 지지적인 관계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최초의 내적작동모델은 이후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기뿐 만 아니라 전 생애 동안 모든 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토대가 되며, 일반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의 애착은 상담관계에서도 의미 있게 드러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형성하는 상담관계는 애착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기대와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김지민, 장재홍, 2009; Mallinckrodt, Gantt, & Cobel, 1995, Satterfield & Lyddon; 1998). 관계형성의 초기에 일어나는 강렬한 정서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이상화하면서 가지는 긍정적인 전이현상들이다. 그것은 초기 애착경험에서 얻는 관계패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Jones, 1983). Horwitz(1974)은 상담에서 치료적 상황을 대상관계로 보았으며, Greenson(1965)은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새로운 대상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성인애착은 성인관계 갈등과 갈등이 유발되는 대인관계 패턴을 잘 예상해주며(김지민, 2009; 신지욱, 2006; 신혜숙, 2010), 내담자는 평상시 대인관계에서 익숙한 관계패턴과 애착관련 기대와 행동을 상담관계 속에서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문영춘, 2007). 선행연구에서 내담자의 애착과 함께 상담자의 애착과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정화(1999)의 연구에서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한 내담자들이 작업동맹을 가장 잘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olan, Arkoff 그리고 Glass(1993)는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애착을 지닐수록 상담초기 상담자와의 관계에 더 의존하고 안정적이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낮은 불안정한 애착을 지닌 내담자는 상담초기 상담자와의 관계를 신뢰에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발달 단계상의 특수성이 있는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 권위자나 사회전반에 대한 반항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이 상담관계에서 의존에 대한 저항을, 상담자와 상담관계 그 자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된다(남상인, 2004; 김혜숙, 1997). 따라서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효과를 위해 어떤 상담자가 어떤 상담 접근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상담자의 개입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청소년 내담자와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작업동맹의 위기의 회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청소년 내담자가 지닌 상담자에 대한 애착을 설정하였다.

한편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서의 상담자의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의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상담과정에서의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Kivlighan과 Shaughnessy(2000)는 작업동맹발달과정(U자 패턴)의 하강과 회복의 측정을 통하여 위기회복과 상담성과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Safran과 Muran(2000)은 작업동맹 결렬의 해결을 위한 모델에서, 상담자의 개입으로는 동맹결렬 징후에 대한 관심, 동맹결렬 표현의 방해물 탐색, 동맹결렬 경험의 탐색, 동맹결렬 속에 들어있는 기대와 욕구의 자기주장 유도를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근간으로 오충광(2007)은 작업동맹에 대한 불만족 강도와 상담자 개입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의 불만족 강도가 높아질수록 작업동맹은 하락하게 되는데, 상담자 개입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은 덜 하락하게 되고 상담자 개입이 적극적일수록 불만족 강도가 작업동맹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상담자가 이런 상담 불만족 경험을 사전에 탐지해내는 방법과 적절한 개입방법을 아는 것이 작업동맹위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입과 불만족 강도, 작업동맹에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뿐, 어떠한 상담자의 불만족에 대한 개입이 내담자의 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관련하여 내담자 변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 질 수 있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불만족 개입 그리고 작업동맹 위기회복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Watson과 Greenberg(2000)는 치료의 과제나 목적과 관련된 동맹의 위기는 내담자가 치료적 변화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료화 작업이나 특정한 치료적 과제의 부과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유대와 관련된 동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현재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반영해주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Janzen, Fitzpatrick, Drapeau와 Blake(2010)는 내담자의 애착의 특성별로, 상담초기에 작업동맹의 발달을 촉진시킨 상담자의 개입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결과, 안정형 내담자의 경우 탐색적이고 분석적인 개입이 작업동맹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한 반면, 회피형 내담자의 경우는 상담자의 조언 등의 지지적인 개입이 작업동맹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작업동맹 위기의 회복과 관련해서 상담에 대한 불만족 개입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 청소년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라고 지칭했을 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연령대를 말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연령은 청소년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완전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며, 의존성에서 벗어나 독립적 정체감을 추구하는 시기로(Specht & Craig, 1987)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8세에서 22세(김동배, 권동준, 2000)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 그리고 작업동맹위기 회복의 관계는 어떠한 지 살펴보고, 특히 상담자에 내담자의 애착과 작업동맹위기 회복의 관계에서 불만족 개입의 어떤 요소들이 매개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작업동맹 위기회복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자의 내담자 불만족 개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상담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불만족개입과 위기회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과 위기회복과의 관계에서 불만족개입이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 청소년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상담기관 및 대학상담소에서 현재 최소 5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18세에서 22세의 내담자다. 그리고 편의표집을 통하여 상담자-내담자 쌍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82개의 상담자-내담자 쌍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소 1번 이상 작업동맹의 위기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사례들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평균상담회기는 18회기였다. 분석에 포함된 상담자는 총 82명으로, 상담경력은 평균 5.5년이며, 지금까지 이들 상담자가 다뤘던 사례의 수는 평균 171사례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현황

표집대상						내담자수(%)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계
남	16	2	4	2	2	26(31.7%)
여	21	10	13	7	4	56(68.3%)
계	37(45.1%)	12(14.6%)	17(20.7%)	9(11.0%)	6(7.3%)	82(100%)

## 측정도구

###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애착유형

Mallinckrodt 등(2005)이 개발한 '치료자에 대한 애착정도'를 지승희(2001)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ATS는 심리치료에서의 애착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6)까지의 6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안정척도(Secure)는 14문항으로 '치료자가 반응적이다', '민감하다', '이해력이 있다', '정서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느낀다'. '두렵거나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탐색하도록 격려 받는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몰입-융합척도(Preoccupied-Merger)는 10문항으로 '치료자와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되고 싶어한다'. '치료의 경계를 넘어 그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한다'같은 문항 구성되어 있다. 회피-두려움(Avoidant-Fearful)는 12문항으로 '치료자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것 같다는 의심을 한다', '치료 중에 위협, 수치감, 굴욕감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작업동맹위기회복 검사지

정선영(2008)이 상담 중 작업동맹 위기경험의 해결을 보고한 내담자용 검사지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담성과의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유대·표현 안심, 대인관계 양식이해, 개별·분리화, 자율·통제감의 4가지 요인으로 각 5개씩,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 표현 안심 측면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서로의 감정에 대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와, 상담 장면에서 욕구나 소망표현에 대한 안심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자신의 대인관계 양식의 이해 측면은 상담과정에서의 위기경험을 통해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 안에서의 부적응적인 특징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와 넷째는 타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조망능력과, 다섯째는 긍정적인 자기 인식, 자율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신뢰도는 .80이었다.

### 불만족 상담자 개입 척도

상담자의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해결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츄광(2007)이 개발한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Safran과 Muran(2000)의 치료동맹 해결과정의 모형을 근거로 제작한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과정중의 불만족에 대한 상담개입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개입척도의 하위요인은 ① 불만족 경험 탐색, ② 불만족 징후 탐색, ③ 불만족 표현의 구조화, ④ 불만족 기대 탐색, ⑤ 불만족 표현의 부담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상담자가 내담

자의 불만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충광(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척도의 각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불만족경험탐색 .89, 불만족 징후탐색 .83, 불만족 표현구조화 .73, 불만족 속의 기대탐색 .74, 불만족표현의 부담탐색 .72였다. 본 연구에서는 .92의 전체 신뢰도를 보였다.

##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 위기회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 불만족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은 불만족 개입을 매개로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불만족 개입이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1,000번에 걸쳐 붓스트랩 표집을 추출하고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sobel 검증방법(Baron & Kenny, 1986)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대체로 매개효과계수가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아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힘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검증력을 감소시켜 2종 오류(type II error)를 범하기가 쉽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하지만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분석표본의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로 표본을 일정수 만큼 반복 추출하여 각 표본들에서 얻어낸 매개효과 회귀계수들의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뛰어난 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재표집 횟수를 1000회로 생성하도록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상담자에 대한 애착, 상담자의 불만족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의 관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된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변인인 내담자가 지닌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불만족 개입 그리고 준거변인인 위기회복과의 관계를 보면, 예측변인인 상담자에 대



한 애착의 하위요인은 중속변인인 위기회복에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상담자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 $r = .67, p < .001$ )의 경우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회피·두려움 애착( $r = -.59, p < .001$ )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불만족 개입은 위기회복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54,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작업동맹의 위기회복력이 높아지고, 회피와 두려움을 지닌 애착일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개입할수록 위기회복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측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애착변인과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불만족 개입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정애착( $r = .57, p < .001$ )과 융합·몰입 애착( $r = .25, p < .05$ )은 불만족 개입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회피·두려움애착은 부적 상관을 드러냈다( $r = -.39,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상담과정 중에서 불만족 개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이고 융합될수록 내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 높아지는 반면, 내담자가 회피와 두려움을 지닌 애착일수록 상담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안정애착, 회피·두려움, 융합·몰입, 불만족 개입, 동맹결렬회복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안정애착( $M = 65.44, SD = 7.31$ ), 회피/두려움( $M = 35.95, SD = 7.88$ ), 융합몰입( $M = 27.47, SD = 6.69$ ), 불만족 개입( $M = 131.83, SD = 18.68$ ), 동맹결렬회복( $M = 66.72, SD = 11.94$ )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각 변인과의 상호상관(N=82)

변인	1	2	3	4	5
1. 안정애착	—				
2. 회피·두려움	-.78***	—			
3. 융합·몰입	.18	-.02	—		
4. 불만족 개입	.57**	-.39***	.25*	—	
5. 동맹결렬회복	.67***	-.59***	.04	.54***	—
범위	14-84	12-72	10-60	26-182	20-100
M	65.44	35.95	27.47	131.83	66.72
SD	7.31	7.88	6.69	18.68	11.94
왜도	-.367	.758	.041	-.600	-.300
첨도	-.268	1.019	.591	.269	.024

\* $p < .05$ , \*\* $p < .01$ , \*\*\* $p < .001$

### 상담자에 대한 애착이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불만족 개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불만족 개입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 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측변인들의 VIF는 1.08~1.89, Tolerance는 .55~.93인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만족 개입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은 유의미하게 불만족 개입을 예측하였으며( $F = 13.52, p < .001$ ),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중 불만족 개입에 미치는 변인은 안정( $\beta = .61, p < .001$ ) 변인이었고, 변량의 32%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상담자가 상담의 불만족에 대한 개입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두려움과 몰입·융합의 경우, 단순상관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중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Bet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단순상관에서는 유의하더라도 중다 회귀분석 결과, 안정애착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이 작업동맹 결렬회복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양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3> 불만족 개입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중다 회귀분석

예측 변인	B	표준화된 $\beta$ 계수	$t$	$adj-R^2$	F
안정	1.42	.61	3.92***		
회피·두려움	.19	.09	.57	.32	13.52***
융합·몰입	.37	.14	1.42		

\* $p < .05$ , \*\* $p < .01$ , \*\*\* $p < .001$

### 상담자에 대한 애착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작업동맹위기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작업동맹위기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 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측변인들의 VIF는 1.07~2.16, Tolerance는 .52~.93인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은 유의미하게 작업동맹 결렬회복을 예측하였으며( $F = 21.48, p < .001$ ),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중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안정( $\beta = .56, p < .001$ ) 변인이었고, 변량의 44%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두려움의 경우, 단순상관 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중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Bet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단순상관에서는 유의하더라도 중다 회귀분석 결과, 안정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양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결렬회복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중다 회귀분석

예측 변인	B	표준화된 $\beta$ 계수	t	adj-R <sup>2</sup>	F
안정	12.89	.56	4.00***		
회피·두려움	-3.22	-.15	-1.10	.44	21.48***
융합·몰입	-.97	-.06	-.72		

\* $p < .05$ , \*\* $p < .01$ , \*\*\* $p < .001$

####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의 하위요인인 표현구조화, 징후탐색, 경험탐색, 표현부담탐색, 기대탐색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작업동맹위기 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중다 회귀분석 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예측변인들의 VIF는 1.98~2.20, Tolerance는 .45~.90인 것으로 드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기회복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은 유의미하게 불만족 개입을 예측하였으며( $F = 18.45, p < .001$ ), 불만족 개입의 하위요인 중 결렬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불만족 경험탐색( $\beta = .43, p < .001$ )과 불만족 기대탐색( $\beta = .32, p < .05$ ) 변인이었고, 변량의 41%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불만족에 대해 개입할 때,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불만족 경험에 대한 탐색과 상담에 대한 기대를 탐색할 때 작업동맹 위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lt;표 5&gt;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대한 불만족개입의 중다 회귀분석

예측 변인	B	표준화된 $\beta$ 계수	<i>t</i>	<i>adj-R</i> <sup>2</sup>	<i>F</i>
불만족 표현구조화	.06	.01	.10		
불만족 징후탐색	-.03	-.02	-.11		
불만족 경험탐색	.95	.43	2.96**	.41	18.45***
불만족 표현부담탐색	-.25	-.08	-.58		
불만족 기대탐색	1.08	.32	2.40*		

\* $p < .05$ , \*\* $p < .01$ , \*\*\* $p < .001$

###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변수가 매개 변수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첫째, 예측변인은 가정된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은 준거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준거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한 후에 줄어들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을 예측변인으로, 불만족 개입을 매개변인으로, 작업동맹위기 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부스트레핑 절차를 사용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의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기회복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1단계 회귀방정식은 내담자의 안정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 $\beta = .244$ ,  $p < .001$ )으로 나타났고, 위기회복의 분산 중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된 매개변인인 불만족 개입을 2단계에 투입한 결과 회귀방정식에서 안정애착과 불만족 개입이 위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으며( $\beta = .44$ ,  $p < .001$ ,  $\beta = .25$ ,  $p < .05$ ), 위기회복에 미치는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준거변인인 위기회복에 대한 예측변인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의 영향력은 가정된 매개변인인 위기회복을 통제한 후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예측 변인	표준화된 $\beta$ 계수	$adj-R^2$	$\Delta R^2$	F
1단계	안정애착	.59***	.45	.45	62.96***
	회피·두려움	-.12			
	융합·몰입	-.08			
2단계	안정애착	.44***	.48	.03	35.36***
	회피·두려움	-.14			
	융합·몰입	-.11			
	불만족 개입	.25*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리고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이 각각 .047과 .28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예측변수	매개변수	준거변수	표준화 계수	S.E.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간접 효과	내담자애착	→ 불만족개입	→	결렬회복	.16	.06	.047 ~ .282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 작업동맹위기 회복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내담자의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 애착과 작업동맹위기 회복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 불만족 개입과 작업동맹위기 회복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내담자가 지닌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불만족 개입, 위기회복과의 관계를 보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작업동맹의 위기를 경험하고 난 후 동맹의 위기회복의 수준이 높아지고, 회피와 두려움을 지닌 애착일수록 작업동맹 위기회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에서의 불만족에 대해 상담자가 개입할수록 위기회복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 정신분석치료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애착특성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거부형 애착은 상담자에 대한 전반적 애착 및 여러 애착 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안정형 애착은 반대로 이들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Parish와 Eagle(2003)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내담자 불안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상담자 발달수준에 따라 작업동맹 수준이 달라지고 내담자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이 높을 경우에는 상담자의 능숙한 개입이 작업동맹 형성에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정은(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상담과정 중에서 불만족 개입과 위기회복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상담자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불만족 개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애착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불만족 개입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상담자는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의 불만족에 대해 더 높은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애착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 애착의 경우 작업동맹 결렬회복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애착유형에 따라 치료 접근을 조정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조정이 있는 경우 치료적 동맹의 형성, 내담자에 대한 이해, 심리치료 성과와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보고한 Dolan(199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수준이 안정적인 경우, 상담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자신의 기대나 욕구, 불만족스러움에 대해서 상담자가 좀 더 탐색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 하위요인인 안정,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이 작업동맹 위기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가 안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작업동맹위기 회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충광(2007)의 연구에서 상담자 개입이 높을수록 작업동맹은 덜 하락하게 되고 상담자 개입이 적극적일수록 불만족 강도가 작업동맹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위기를 경험하고, 이를 회복했다고 보고하였을 경우, 상담자에 대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기 회복 후에 나타나는 성과적 측면인, 상담자와의 유대와 감정표현에 대한 안심, 자신의 대인관계 양식이해, 자신과 타인과의 조망능력, 자율·통제감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내지만, 회피·두려움과 융합·몰입애착이 높은 경우 상담의 위기를 넘겼다고 스스로 지각하더라도, 실제, 위기회복 후에 따라오는 내적인 성과를 크게 획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상담자의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의 하위요인인 표현구조화, 징후탐색, 경험탐색, 표현부담탐색, 기대탐색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경험탐색과, 기대탐색의 하위요인이 위기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불만족 개입 중에,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불만족 경험에 대한 탐색과 상담에 대해 내담자가 가지는 기대를 탐색하면서, 이를 상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었을 때, 작업동맹 위기의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위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주요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회피·두려움, 융합·몰입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이 작업동맹 위기 회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기상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개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애착 수준보다 높음을 보여줬다. 즉, 이때 안정적인 애착경향을 보인 내담자들은 위기 경험할 경우에 상담자가 내담자가 가진 불만족에 대하여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위기회복 후 습득되는 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과정과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역할을 애착이론의 돌봄(caregiving)으로 보고, 양육자로서의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담자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Pistole(1989; 1999)과 성공적인 사례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므로 교정적인 정서경험을 하게 된다는 Mallinckrodt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며, 치료의 과제나 목적과 관련된 동맹의 위기는 내담자가 치료적 변화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료화 작업이나 특정한 치료적 과제의 부과와 같은 개입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Watson과 Greenberg(2000)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유대와 관련된 동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반영해주며,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회피적이거나, 지나치게 융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회복하여 상담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를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습득되는 성장적 측면은 낮고, 또 상담자의 개입에 대한 노력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한 후기 청소년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동맹결렬회복과의 관계에서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

의 애착과 함께 Safran의 동맹결렬 해결 모델에 '상담 불만족에 대한 구조화'를 첨가하여 상담 불만족에 대한 개입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동맹이 결렬되었을 때의 회복력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측면에서 상담자와의 안정애착은 내담자에게 안정기지의 역할을 하여 작업동맹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결렬위기에서도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담 불만족에 대한 구조화의 측면에서,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과정의 불만족을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내담자가 이를 표현하고 상담자와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동맹결렬회복과의 관계에서 내담자 불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와의 애착이 지닌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상담과정에서의 불만족 개입을 통해 동맹결렬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입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임상적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작업동맹의 결렬위기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상담에 대한 불만족스런 경험을 구조화를 통해 표현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있는 상담자와 수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초보 상담자에게 유용한 자료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생각하는 내담자와의 관계형성보다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와의 애착관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담 초기뿐만 아니라, 상담 전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와의 관계에 세심하게 살펴보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숙련된 상담자뿐만 아니라 초보상담자에게 있어 내담자의 불만족을 다루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불만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상담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과 관련된 정보는 상담자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상담의 위기경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위기 경험 유무와, 위기의 정도, 해결정도를 내담자의 단회적 측정 보고치를 근거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회기별 반복측정을 통해, 동맹의 고저를 측정하여, 객관적 수치에 근거하여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과, 위기해결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담과정 중 상담자의 불만족 개입의 측정이 내담자의 평가에 의존하므로, 상담자 개입방법에 대한 상담자 보고를 평정치로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청소년 상담기관 및 대학상담소에서 현재 최소 5회 이상 상담이 진행된 18세에서 22세의 내담자를 편의 표집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과 다른 대상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연구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애착과 작업동맹 위기회복과의 관계에서 불만족 개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험연구와 같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구정은 (1999).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희경 (2000). 상담자 태도 및 저항에 대한 개입이 저항감소와 상담 지속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 (2000). 상담학 연구. 서울 : 학지사.
- 김동배, 권동준 (2000). 인간행동이론 실천. 서울 : 학지사
- 김지민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 상담기대 및 작업동맹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 장재홍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기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학회지 : 상담학 연구, 10(4), 2349-2365.
- 김혜숙 (1997).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청소년 상담. 청소년상담연구, 5(1), 9-90.
- 남상인 (2004).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 77-91.
- 문영춘 (2007). 성인애착 특성과 상담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09-634.
- 신지욱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숙 (2010). 성인애착과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이환 (2002). 대학생 개인상담에서 조기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11-527.
- 오충광 (2007). 내담자 불만족에 대한 상담자 개입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463-2482.
-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235-264.
- 이정화 (1999). 내담자의 애착유형과 작업동맹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2007). 치료동맹의 발달유형과 위기해결 과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선영 (2008). 상담에서의 작업동맹 위기해결을 위한 진단척도의 개발과 적용.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찬석 (2004).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의 도움측면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1), 21-35.
- 지승희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인화 (2007).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 및 상담성공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Loss, sadness and depression*, 3. New York : Basic Books.
- Dolan, R. T. (1992). Attachment Style and the quality of the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3, 9217094.
- Dolan, R. T., Arnkoff, D. B., & Glass, C. R. (1993). Client attachment style and the psychotherapist's interpersonal stance. *Psychotherapy*, 30, 408-412.
-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 Foote, D. (1996).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theories: an application in the therapy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Greenson, R. R. (1965). The working alliance of transference. *Psychoanalysis Quarterly*, 34, 155-181.
- Horwitz, L. (1974). *Clinical prediction in psychotherapy* : Northvale, NJ: Jason Aronson.
- Hubble, M., Duncan, B., & Miller, S. (1999).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nzen, J., Fitzpatrick, M., Drapeau, M., & Blake, 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and therapist interventions in client-nominated relationship-

- Building incident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4(4), 363-382.
- Jones, B. (1983). Healing factors of psychiatry in light of attachment theory.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235-244.
- Kazdin, A. E., Mazurick, J. L., & Siegel, T. C. (1994). Threatment outcome among children with externalizing disorder who terminate prematurely versus those who complete psycho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546-557.
- Kivlighan, D. M., & Shaughnessy, P. (2000). Patterns of working alliance development : A typology of working alliance rating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2-371.
- Kivlighan, D. M., Patton, M. J., & Foote, D. (1998). Moderation effects of client attachment on the counselor experience-working alliance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74-278.
- Kokotovic, A. M., & Tracey, T. J. (1990).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21.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6.
- Mallinckrodt, B. (1991). Client's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form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01-409.
- Mallinckrodt, B., Gantt, D. L. & Coble, H. M.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307-317.
- Muran, J. C. (2002). A relational approach to understanding change: Plurality and contextualism in a psychotherapy research program. *Psychotherapy Research*.
- O'Malley, S. S., Suh, C. S., & Strupp, H. H. (1990). The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581-686.
- Parish, M., & Eagle, M. N. (2003). Attachment to the therapist. *Psychoanalytic Psychology*, 20(2), 271-286.
- Pistole, M. C. (1989). Attachment ; Implications for counselor.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190-193.

-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perspective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7-446.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Rhodes, R. H., Hill, C. E., Thompson, B. J., & Elliott, R. (1994). Client retrospective recall of resolved and unresolved misunderstanding ev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473-483.
- Safran, J. D., & Muran, J. C. (2000). *Negotiating the therapeutic alliance : A relational treatment guide*. New York : Guilford Press.
- Satterfield, W. A., & Lyddon, W. J. (1995). Client attachment and perceptions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87-189.
- Satterfield, W.A., & Lyddon, W. J. (1998). Client attachment and Working Alliance.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1*, 407-41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pecht, R., & Craig, G. J. (1987). *Human development: A Social work perspective (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Watson, J. C., & Greenberg, L. S. (2000). Alliance ruptures and repairs in experiential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2), 175-18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 Problems and remedies. In Rick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 Sage.

#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in Counse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Jung, Sun-Young                      Cha, Ju-Hwan  
Jangan University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on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in a sample of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authors collected data from a total of 82 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as follows. First, when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secure attachment,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Meanwhile, avoidant/fearful attach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analysis were conducted to test mediating effects of the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ttachment and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ddressed.

*Key words : adolescents, client attachment to counselor, intervention to client dissatisfaction, working alliance crisis resolution*

